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대만 사법원, 동성결혼 금지 현행법에 ‘위헌’

2년 안에 법률 정비 예정...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대만 사법원(司法院, 한국의 헌법 재판소)이 24일(현지시간)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해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될 전망이다. 대만 자유시보와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사법원은 이날 오후 심리에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혼인의 자유 보장과 성별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 “이성간 결혼에서 자녀를 반드시 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며 자녀를 출생치 않거나 불임인 경우 결혼이 무효라는 규정도 없다”면서 동성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만의 동성애운동가 치자웨이 등이 위헌소송을 내면서 나왔다. 14명의 재판관 가운데 2명만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만 입법원은 사법원의 결정에 따라 2년 안에 동성혼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할 예정이다.

대만에서는 1990년부터 동성결혼

을 허용해 달라는 운동이 시작돼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성소수자 권리에 있어 진보적인 편으로 꼽힌다. 특히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해온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작년 5월 집권하자 이런 요구가 고조돼 왔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장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세우신 남녀 간의 성적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라면서 “한국교회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GNPNEWS]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이사야 55:7)

기도 |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육적인 쾌락과 정욕에 빠져 죄의 노예가 된 수많은 영혼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와 십자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십자가 사랑 앞에 선 인생풍경



- 파키스탄 거리에 있는 구멍가게

가지런히

진열돼 있는 음료수와 여러 가지 물건에서 꼼꼼한 아저씨의 손길이 엿보인다. 아이들을 위해 초콜릿과 사탕은 앞쪽 낮은 곳에 진열돼 있다. 가게 안의 물건들을 살펴보다 문득 아저씨 안경에 비친 풍경에 시선이 멈춘다. 사진을 확대해보니 맞은편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는 두 사람이 보인다.

한 인생이 세상 풍경을 보고 있었다. 하루에도 수없이 가게 앞

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생 풍경. 어느덧 자란 흰머리만큼이나 지난 세월이 바탕이 되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각자 다른 궤적을 그리며 살아온 삶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또 계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보이는 대로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바탕 안에서 회복된 의인으로 보신다. 그분은 모든 삶의 풍경들을 십자가 사랑의 바탕 위에서 살피시며 지

금도 아름답게 그려 가고 계신다. [GNPNEWS]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또 믿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데도 할렐루야”(시편 113:5~7, 9)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36)

십자가가 너무 많은 밤하늘이 싫으세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밤하늘 아래 곳곳의 붉은 십자가가 싫으세요? 뉴욕의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아내가 있는 플로리다로 버스를 타고 가는 ‘빙고’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가정이 어렵게 된 것이 미안해서 아내에게 자신을 잊고 새 출발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소식은 3년이나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신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표시로 노란 리본이 집 근처 길가 참나무에 걸리면 아내에게 돌아가겠노라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리본이 걸려 있지 않으면 그냥 집 앞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온통 노란 리본으로 뒤덮인 나무였습니다. 하나로눈에 띄지 않을까봐, 그래서 그냥 지나칠까 봐 구할 수 있는 모든 노란 천을 걸어 아내가 용서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웬 십자가가 그렇게도 많으냐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용서하여 부르신다는 표시입니다. 십자가가 많은 것은 당신이 그냥 지나칠까

봐 걸어놓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노란 리본이 아무리 참나무에 많이 걸려 있어도 빙고라는 사내가 고개를 숙이거나 반대 방향을 보았다더라면 아내의 용서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육체의 죽음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면하려면 죄를 용서받아 깨끗해야 합니다.

무슨 죄를 용서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싫어해서 당신 자신이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살아 왔던 죄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하나님



일러스트= 김경선

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얻어 당신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제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삶을 돌이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용서의 선물은 진정 당신 것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새 생명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용서의 붉은 십자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용서를 받아들이세요. [GNPNEWS]

INSIDE

02 뉴스 | 아메리카 “종교 자유는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

03 특별기획 | 존 맥아더 “아들을 남자답게, 딸을 여자답게 양육하라”

05 인터뷰 | 신민선 선교사 “인생의 마지막을 다음세대 섬기는 일에 드렸어요”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회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08 부즈 인 박스 | 엄마라고 불려도 돼요? “엄마를 찾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은 뚝뚝”

아메리카

“종교 자유는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

펜스 미 부통령, 박해받는 기독교인 월드서밋에서 밝혀



▶ 월드 서밋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연설하는 장면(출처: 유튜브 채널 빌리그레이엄 복음주의협회 캡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모든 신앙인의 종교 자유는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라고 최근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월드 서밋(World Summit In Defense Persecuted Christians)에서 밝혔다.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의 빌리그레이엄전도협회(BGEA) 주최로 지난 5월 11일 미국 워싱턴 D.C. 메이플라워호텔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펜스 부통령은 연설을 통해 자신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희망과 빛과 자유의 등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박해 경험이 있거나 박해와 관련된 기독교계 관계자 6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중동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행동에 나서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오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 아래 미 공군은 지역 동맹군들과 협조해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 격퇴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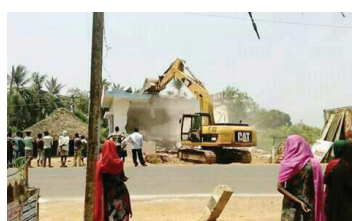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성도의 수가 10만 명이 넘고 지난 10년 동안 그 숫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며 “이것은 기독교인에 대한 집단학살”이라고 밝혔다.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섬기고 있는 오픈도어스에 따르면, 매년 전세계 4000명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집단학살이라는 용어는 도덕적이며 법률적인 용어로 쉽게 채택하지 않고 있다. 집단학살로 규정할 경우, 정치적인 개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존 케리 미국 전 국무장관은 2016년 ISIS의 중동의 야지디 기독교인 살해를 집단학살로 규명한 바 있다. 개신교와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등에서 참여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대회기간 4일 동안 3m 높이의 전자 게시판에 순교자의 이름이 계속해서 화면에 띄워졌다. [GNPNEWS]

아시아

인도 힌두 과격단체, 40시간마다 기독교인 공격

인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 40시간마다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인도의 기독교 단체인 전인도기독교협회(All India Christian Council)가 최근 밝혔다. 이 단체는 인도의 집권 힌두민족정당이 힌두교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난폭한 공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20% 증가했는데 물리적인 폭력은 40% 증가했다. 보고서는 “폭력이 점점 극렬해지고 있으며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폭력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

었으나 지금은 23개 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들의 폭력 형태는 교인들을 구타하고, 교회에 불을 지르며, 성경을 불사르며, 살해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힌두교로 개종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난 5월 초 북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에 본부를 둔 극우 힌두교 단체 유바 바히니는 150명 이상이 참석한 기도회는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한 집회로 간주하며 경찰력을 동원, 기독교인들이 우타르 프라데시 지역에서 기도회를 하지 못 하게 했다.



▶ 인도 비하르주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난 4월 한 교회 건물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인도의 한 기독교인은 공개적으로 신약성경을 나눠주다 힌두교 과격파들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 이같은 폭행은 힌두교 민족주의 정당이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한 후 점점 늘어났다. [GNPNEWS]

한국

16기 청소년복음수련회 훈련생, 섬김이 모집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16기 청소년복음수련회가 문광교회(최종덕 목사, 경기도 광주시)에서 2017년 7월 24일(월)~28일(금)까지 4박 5일간 열린다. 참가대상은 중학교 2학년(2003년생)에서 고등학교 3학년(1999년생)에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이며,

원서 접수 기간은 6월 5일(월)~7월 4일(화)까지다. 원서는 웹사이트(cafe.naver.com/youthgnr)에서 내려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해외일 경우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섬김이는 청소년복음수련회, 복음캠프 수료자, 복음학교 수료자



가운데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훈련생 모집 기간과 동일하다. 훈련생 회비는 3만 원. 문의 ☎ 010-3380-5781, 010-7331-7710, 이메일: nggn777@naver.com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5.15 ~ 5.28)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영국서 가짜뉴스에 문 닫은 인도 식당

영국 런던의 한 인도 식당이 ‘사람 고기를 이용해 음식을 만든다.’는 가짜뉴스 탓에 문을 닫게 됐다고 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가짜뉴스는 SNS를 타고 일파만파로 퍼졌고 이를 믿은 사람들은 이 가게로 전화를 걸거나 심지어 직접 가게로 찾아와 가게를 부수겠다고 협박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리의 분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깨닫고 대세에 밀려가는 인생이 아닌, 진리에 맞을 내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혈혈단신 어린이 난민 5년간 5배 급증

보호자 없이 홀로 난민길에 오른 어린이가 최근 약 30만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현지시간)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말을 인용해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015, 2016년 사이 전 세계 80개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미성년 난민 중 30만여 명이 가족 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는 2010년(6만 6000여 명)과 비교해 5배 가깝게 늘어난 규모다. 전쟁과 테러로 부모도 없이 무작정 발걸음을 옮긴 어린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든든한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되어주셔서 두려움에 종노릇하는 인생을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100년 전 지어진 성당, 나이트클럽에서 다시 교회로 회복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시 웨스퍼드에서 나이트클럽으로 변했던 교회 건물이 다시 예배당으로 회복됐다고 23일(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건물을 구매한 오차드힐 교회 커트 비요클룬드(Kurt Bjorklund) 담임목사는 “이 건물을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 매우 적당한 공간이며 예배당으로 다시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주님. 거룩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던 공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건물의 사용 용도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주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7년 6월 1주~6월 2주

6월 1주(6.5~6.10)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 (전**)010-5337-2771
-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 (김**)010-6280-4419
- ▶경기 수원 / 하늘꿈연동교회 (이**)010-3737-3629

6.5~6.8~9(매일 10~12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6.7(0~24시)

- ▶경기 수원 / 진흥교회 (남**)010-8268-6879

6.5~9(매일 14~19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6.9(08~20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6.8~10(매일 07시~19시)

- ▶전북 전주 / 전주은혜샘교회 (정**)010-4272-9905

6.9(22시)~10(22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6월 2주(6.12~6.17)

- 6.12~13,15~16(매일 10시~12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 6.12~16(매일 14시~19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6.16(08시~20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6.16(22시)~17(22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기도참여 문의

이 기도모임은 지역교회 등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락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처음 참여하시는 분은 기도24-365 본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도 24-365본부 느헤미야52팀 070-4803-9026~7, 010-5424-4641 www.prayer24365.org

📖 특별기획 |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4.끝)

“아들을 남자답게, 딸을 여자답게 양육하라”

미국은 지금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주된 이슈로 세속적인 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이 같은 시대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 존 맥아더 목사의 현실 진단과 대안 제시를 4회에 걸쳐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소망을 갖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이었다. 재림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다. 아무리 상황이 나쁠지라도 예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재림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덮여있는 베일이 벗겨지는’ 일이다.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살후 1:7),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30)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베들레헴도, 말구유도, 목수의 작업장도, 가난도, 그분의 죽음을 애통해 할 죄인들도, 그분과 대립하던 거짓 종교지도자들도, 악한 힘으로 그분을 공격하던 사악한 자들도, 그분의 손에 못 박거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울 군인들도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온 세상의 통치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때 살아있는 온 세상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볼 것이다.

성경에는 재림 때의 불의 심판이 있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시 50:3),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서”(시 97:3) 특히 요한계시록 6장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장면들이 가득하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은 재림의 특징을 ‘형벌’과 ‘안식’, 두 단어로 정의한다.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안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인 것이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형벌을 내리시리니”(7~8절) 누구에게 형벌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에게다.

성도에게는 안식을, 불신자에게는 형벌을

우리는 이 세대에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지옥에서 영원한 삶이 확정되어 있음을 선포해야 한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9절)

하지만 6~7절에서는 이 형벌이 ‘공의’와 ‘정의’라고 말한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공의요 의로움이라 말씀하신다. 시편 곳곳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해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천국보다는 지옥과 심판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하신 설교자였다. 누가복음 20장의 포도원 농부 비유로 충성되



지 못한 이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세상 끝날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사도 바울은 선포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고전 16:22) 실제로 예수께서는 심판 날에 대해 말씀하실 때,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나를 파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외치셨다. 예수님의 전 사역을 통한 심판에 대한 선포는 이것을 듣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었다.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우리는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주님의 교회는 애정 어린 마음으로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에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심판을 선포해야 한다. 돌이키게 해야 한다. 예수께서 오신다! 그분

은 자기 백성들을 핍박한 자들에게 영원한 고통의 형벌로 벌하시러 오시지만 그것은 보복이 아니라 정의이고 공의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은 형벌만이 아닌 안식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살후 1:7) 고난을 당한 바울과 함께 동역한 성도들 그리고 모든 초대 교인들은 안식을 갈망했다.

심판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배격한 자들은 영원토록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재림의 사건이 성도에게는 안식을 가져다준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세상에서 고난당하던 성도들에게 괴로움과 박해와 고난은 끝날 것이라고 약속해주셨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라게 여김을 얻으시리

니”(살후 1:10)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은 삶을 산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산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도 전할 만큼 그들을 충분히 사랑한다.

지옥, 유향불. 이런 말들은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을 동정해야 한다고 외친다. 그러나 그것은 변태적인 것이고 타락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빛나간 것이며 신성모독이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는 사실과 이제 그러한 죄악이 어디에든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찢는다. 일전에 어떤 세살배기 아이의 부모가 아이에게 성전환 수술을 시키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다. 비참한 일이 만연해 있다.

교회들에게 도전한다. 아들이 있다면, 확실히 ‘남자’로 자라게 하라. 딸이 있다면, ‘여자’로 확실히 성장하게 하라. 자녀들이 이런 일탈과 타락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일과 싸워야 할 거라곤 상상도 못 해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산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신다. 세상은 빠르게 망가져 가고, 우리는 모두 외칠 수밖에 없다. “그렇지라도,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준비되었으니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2015.7) [GNPNEWS]

월드 포커스

미숙아 생존을 위한 ‘인공 자궁’ 개발 논란... ‘새끼 양 4주 동안 생존해’

미국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연구진들이 미숙아들의 생존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인공 자궁을 개발했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이 4월 25일 밝혔다.

사람으로 치면 임신 23주가 된 새끼 양이 몇 주 정도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미 뱃속과 같은 인공 자궁 장치인 ‘바이오 백(biobag)’을 개발한 것이다. 이 장치에는 아기의 탯줄로 연결되는 두 개의 관이 있는데, 하나는 산소 호흡기와 연결되어 아기의 혈액에 산소와 영양소를 주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킨다. 다른 하나는 아기의 심장박동의 힘을 이용하여 아기의 체내로 혈액을 펌프질해

돌려보낸다.

연구진들은 바이오 백들을 따뜻하고 어두운 방에 두었고 어미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렇게 바이오 백에서 새끼 양들을 4주 동안 키워 털이 자라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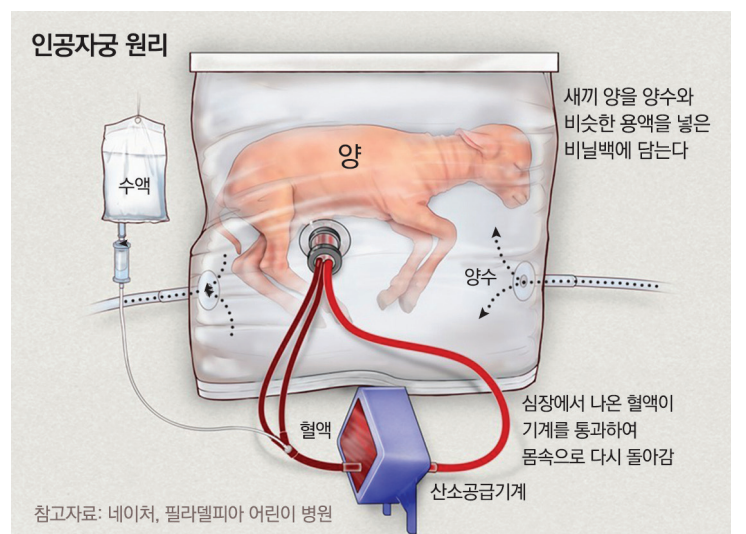
이 저널에 실린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인공 자궁은 새끼 양에게만 실험되었지만, 연구진들은 수년 안에 미숙아들에게 실험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바이오 백은 실용성에서 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산소에 노출되면 탯줄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튜브를 거는 것이 어렵다. 양수는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리버티 대학교 물리치료대학의 내과 및 산부인과 교수이자 의사인 존 피어스(John Pierce)는 “그것은 인공 자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궁’이라는 용어는 바이오 백을 너무 많이 신뢰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피어스는 “인공 자궁은 정자와 난자로부터 출산까지의 착상과 성장을 뜻한다.”면서 “이 장치는 이미 발달된 장기들을 취하고 감염의 위험 없이 더 자라도록 하는 것에 대해 큰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이 시스템이 기적의 환경이라 부르는 자연적 자궁처럼 좋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리하이 대학의 생물윤리학자 데나 데이비스(Dena Davis)는 “지금



까지 우리의 고민은 날거나 날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일은 반만 낳는 일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낙태 정책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GNPNEWS]

기획 | 조선선교열전 (1) - 전라북도 편

개화기 지식인들, 조선 선교를 요청하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올해로 132주년을 맞는다. 구한말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선교 역사는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나라 곳곳의 선교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우리나라에 최초로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1832년(순조 32년) 네덜란드 선교회 소속 독일인 칼 귀츨라프(C.A. Gutzlaff)가 영국 동인도회사의 상선 암허스트(Lord Amherst)호를 타고 전도할 목적으로 온 것이 처음이다. 태국과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그는 극동아시아를 탐사하던 중 그해 7월 17일 백령도에 도착했고, 21일에는 군산만 창선도(昌善島)를 거쳐, 25일에는 충남 보령 고대도에 도착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중국에서 가져온 한문 성경을 조선 사람에게 전했고, 때로는 의약품 등을 나누어주면서 병을 치료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전북지역이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한 것은 이때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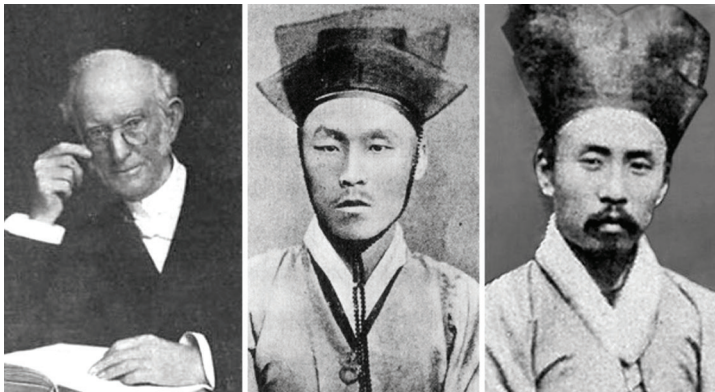
비록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한 달 남짓 머물다 돌아갔지만, 그가 기록한 항해기는 유럽과 미국에 조선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30년이 지난 1866년 제너럴셔먼호를 타고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와 1884년 알렌 선교사에 이어,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정식으로 파송되어 조선에 본격적인 선교가 펼쳐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1880년대 조선 문호 개방, 선교 본격화

당시 조선은 쇄국주의자인 대원군이 1873(고종 10년)에 물러난 후 열강들의 문호개방 압력을 받고 있었다. 1882년(고종 19년) 5월 미국과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등과도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며 500년 '은둔의 나라' 조선의 문이 열리며 개신교 선교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외국 사정에 눈이 어두웠던 조선은 당면한 형세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문화에 대한 지식을 시급히 요청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젊은 지식인들부터 서구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달성해보자는 개화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1882년에는 박영효, 김옥균, 서광범 등이 일본에 가서 그곳에 도입된 서구문화를 살폈는데, 당시 김옥균이 친교를 맺은 여러 인사 중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감리



▶ 왼쪽부터 감리교선교회 대표 맥클레이, 개화가 김옥균, 초대 조선 기독교인 이수정.

교선교회 대표자인 맥클레이(R.S. Maclay) 목사도 있었다. 김옥균은 그에게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김옥균, 조선 선교의 필요성 역설

한편, 1882년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된 후 정부는 1883년 여름, 민영익을 보빙대사(報聘大使)로 임명하고 미국을 방문케 했다. 그는 미국에서 가우처대 학장인 가우처(John F. Goucher) 목사를 만나 우리나라 사정을 이야기했고, 가우처는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1883년 11월 6일자로 감리교 해외선교본부에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편지

를 보냈고, 1884년 1월 당시 일본에 있던 맥클레이가 조선 선교를 위한 정탐요청을 받았다. 그해 6월 26일, 맥클레이는 인천에 도착, 친분이 있던 김옥균을 통해 7월 3일에 고종으로부터 교육과 의료사업의 유히를 받았다.

호남 출신 이수정의 성경 번역

이같은 준비 이후, 1884년 9월 22일에 미국 북장로교선교본부는 의료선교사 알렌(H.N. Allen)을 서울에 보냈다. 그리고 그해 말 미국 북장로회의 언더우드(H.G. Underwood)와 북감리회의 아펜젤러(H.G. Appenzeller) 부부도 조선 선교를 위해 먼저 일본으로 가서 맥클레이 목사의 집에 머물던

서 조선 입국을 준비했다. 그러나 조선은 1884년 12월에 일어난 갑신정변으로 어수선한 상태였다. 이때 훗날 조선인 초대 교인의 한 사람이 된 이수정(李樹廷)을 만나 우리말을 배우는 한편 갑신정변으로 일본에 망명 중이던 박영효를 만났다.

이수정은 전라남도 옥과 출신으로 박영효가 이끈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그곳에서 농학자 츠다를 만나 전도를 받고, 그에게 받은 성경을 통해 기독교에 입문한 호남인이다. 박영효 역시 그들에게 조선이 합법적인 개혁을 하기에 앞서 백성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독교화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들에게 힘을 얻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부부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수정이 번역한 한국어 쪽 복음인 마가복음서를 한 아름 안고 들어왔다. 하나님은 호남 출신 이수정을 준비시켜 선교사가 이 땅을 밟기도 전에 성서를 번역하는 선교역사상 이례적으로 모국어 성경을 주시며 이 땅의 복음화를 이끄셨다. <계속> [GNPNEWS]

참고문헌: <전라북도 기독교 근대문화유산의 현황과 의미, 2012>



선교 통신 | 부흥의 현장 (3.끝)

“정부의 핍박이 오히려 부족선교의 비전 품게 해”

베트남 북부 지역 라오까이에 거주하는 몽족 그리스도인 짱 아강 목사는 현재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 한때 공산당 간부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는 압수한 성경을 읽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현재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의 간증을 소개한다. <편집자>

중국 목사님과 함께 한 훈련을 통해 저의 믿음은 더 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얼마 후 저는 ‘선교하는 기독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

다. 따핀 교회도 계속 성장해 교회 건축을 시작했고, 2009년에는 자력으로 교회를 완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빠 지역에 있는 9개의 교회와 1400명의 성도를 대상으로 저는 2010년까지 그들의 성장을 목표로 성경공부반을 열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2011년에는 마침내 따핀 교회가 정부로부터 법인으로 등록, 공인되었습니다. 이후 사빠 지역에는 지속적인 부흥이 일어나 교회는 16개로 늘어났고 성도 수



▶ 짱 아강 목사의 기도회와 몽족 그리스도인들의 찬양하는 모습.

도 2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목적으로 신학교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간 이어진 따핀 교회의 신학교는 또다시 정부의 불허와 방해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학교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저는 각 부족들에게 들어가 선교하려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1월 12일에는 저희 사빠에서 100km 떨어진 라오까이 도 므영크영 군 따 응아이 쯔 마을에서 성

경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 지역인데 지역 경제 상태가 엄중해서 지금까지 선교사가 들어간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우리를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2명의 남자 어른과 5명의 여자들, 그리고 2명의 어린아이들, 모두 9명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빠의 따핀 교회로 불러 성경훈련을 시켰습니다. 많은 돈이 들었지만 여러 번 호텔을 빌려 성

경을 가르쳤습니다.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저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핀에서부터 사역한지 13년째이지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지속되고 있으며,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기쁘게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곳의 교회는 계속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25일에는 인근 주민이 따 응아이 쯔 마을에 있는 성도들을 읍과 므영크영 군의 경찰에 밀고해 그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인민위원회에 소집되어 신앙의 변절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누구든지 믿음을 포기하는 서류에 사인하지 않으면 므영크영 군에서 떠나야 하고, 의료 보험증을 회수하고, 학교에도 다닐 수 없고,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3월 29일에는 경찰 병력과 주민들이 마티사우의 집에 난입하여 가족을 폭행하고 마티사우의 가족, 남편인 리 세우 쯔이 심하게 맞다가 도망쳐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4월 3일에 우리는 첫번째 항의 공문을 만들어 므영크영 군 인민위원회에 제출하고 4월 8일에는 인민위원회와 경찰서에 찾아가 직접 만나서 항의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핍박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핍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간증문을 적으며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 우리 가족은 저를 대신해서 농사를 짓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여러모로 미안한 마음이 큼니다. 쉽지 않은 저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GNPNEWS]

번역: L통신원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인생의 마지막을 다음세대 섬기는 일에 드렸어요”

44년의 긴 미국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에 남은 인생을 드린 신민선 선교사를 만났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불신자로 28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72세에 선교사가 되어 돌아온 한국. 짧은 대화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한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의 이야기 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

-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헤브론원형학교라는 기독교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또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뭔가를 가르친다기보다 지금도 계속 배우는 중이에요.”

-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헌신하게 되셨나요?

“결국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죠. 다음세대에 대한 부르심은 미국에 있을 때 한 선교단체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수련회를 열었는데요. 거기에 섬김이로 참여하면서 받게 되었어요. 저의 역할은 중보기도였는데 처음에 이 아이들의 모습은 전혀 복음 앞에 반응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거의 듣지도 않고, 처음부터 계속 집에 가겠다고 하는 아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투정하는 아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참 낙심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수련회가 마칠 때쯤 아이들의 고백을 듣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태도로 있었던 아이들도 선포되는 말씀을 다 듣고 있었더라고요. 그 수련회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렸고 참여했던 아이들 중에는 미국 동부에서 온 아이들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왜 우리 동부에는 이런 수련회가 없냐.’고 갑급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사실 그때까지 저는 메마르게만 보이는 이 미주 땅에는 소망이 없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청소년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니 너무 큰 소망이 되었어요.”

메마른 땅에서 경험한 복음의 능력

- 그렇게 다음세대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신 거군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여기 헤브론원형학교가 처음 세워졌을 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잠깐 방문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게 되었는데요. 수학수업을 참관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수업에서 한 선생님이 ‘여러분, 성경 안에 수학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하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숫자를 만드신 거예요.’라

며 가르치는데, 저는 그런 수학수업은 평생에 처음 봤어요. 정말 성경이 교과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다시복음알에’라는 집회에서 이 학교의 학생들이 로마서를 3장까지 외우면서 하는 뮤지컬 ‘로마에 온 편지’를 보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미국 생활은 다 정리하신 건가요? 그 과정을 좀 나누어 주세요.

“지금은 미국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아주 헌신을 하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한 1, 2년만 섬길 생각이었어요. 제가 한 40대만 되었어도 종신으로 헌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46년생이거든요. 아무튼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최종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어요. 섬기던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사역하며 예배부를 맡고 있었고, 미국에 있던 동생들도 제가 한국에 오는 것을 다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세대에 대한 부르심에 순종을 했죠. 이곳에 도착하고 보니 산들이 둘러서 있었고, 또 눈이 많이 와서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문자메시지로 지인들에게 보내면서 이런 아름다운 곳에 잘 있다는 것을 알렸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죠. 이곳에 온 지 4일 만에 발을 헛디뎈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헌신 결단과 함께 발목 골절 “위기”

- 많이 어려우셨겠어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의 축복보다는 반대 가운데서 헌신하게 된 것이기도 하고, 또 오자마자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긴 것이어서 너무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인들에게 말하기도 너무 부끄러웠고요. 개인적으로는 왜 믿음으로 순종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혼란스러운 마음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저에게 한 선교사님이 방문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죠.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바로 학교를 섬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회복하는 동안 ‘전능자의그늘미니스트리’라는 선교단체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제가 가기 일주일 전에 휠체어로 화장실 등 모든 곳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건물을 처음부터 그런 용도로 공사를 한 것이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건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된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오직 그리스도만 남은 신민선 선교사(헤브론원형학교)

종신선교사의 삶 결단

예복과 동행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고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된다

복음 앞에 서다

모임 여인 룯과 같았던 인생

시아머니 통해 예수님 만나

십자가 복음 통해 복음이 실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어요.”

-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셨군요.

“그 이후로도 아무튼 계속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회복하는 동안에도 제 마음 속에서는 수시로 갈등이 일어나고 평안하지는 못했죠. 어느 정도 회복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학교가 진행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바쁜 일정을 보내는 다른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주눅이 들었어요. 컴퓨터도 모르고, 기도정보 복사하는 것도 어렵고, 어느 것 하나도 익숙한 것이 없었죠. 그때마다 계속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다른 지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위축되어 있다 보니 그들의 말과 행동에 제가 스스로 오해하고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곳에 도움이 되는 커녕 방해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기 시작했죠. 결국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1년만 섬기고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 주님이 마음을 가난하게 이끄셨네요.

“그렇죠(웃음). 그리고 얼마 후 학교에서 한 주 동안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52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맡은 시간에 기

도 인도를 하다가 창세기 5장에서 예복을 보게 되었어요. 24절에 ‘예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민선아, 너 나와 함께 있지 않을래?’ 제가 평소에 예복을 좋아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고 싶어 했어요.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아멘.’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요. 도저히 자기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고쳐주시잖아요. 그것을 보니 제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학교의 허락을 얻어 미국에 다녀왔어요. 미국에 차도 있었고, 저의 모든 살림들이 임대 컨테이너에 있었는데 다 정리했어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종신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어요.”

미국의 모든 삶의 흔적들 정리

- 지금은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하죠. 그후로는 자잘한 문제들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요즘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이죠. 길을 걸어도 감사하고. 여긴 또 산책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자연 속에서 산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인생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저는 아주 철저한 불교 집안에

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할머니께서 불공을 드렸는데, 그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교에 아주 특심인 집안이었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는 소고기 외에는 다른 고기를 먹어보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23살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네 형제 중 맏이여서 동생들을 돌보느라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참 소망 없는 나날들을 보내다가 친구 오빠의 소개로 선을 보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댁사람들이 모두 교회를 나가갈래도 따라 다니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불교당어리가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교회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좋다가 오기도 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 찬양을 하면서 어쩔 그리도 눈물이 나던지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이민 초기에는 경제적인 면이 참 많이 어려웠어요. 일단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베이컨을 포장하는 공장에서 한동안 일을 했어요.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한 거죠. 나중에는 대학에서 패션을 전공해서 10년 동안 옷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남편과 함께 돈을 벌었는데 꽤 벌이가 좋아서 집도 사고, 좋은 차들을 몰고 다녔어요. 말하자면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진 거였죠.”

- 자수성가하셨네요. 신앙생활은 어떠셨나요?

“사실 돌아보면 미국에서 제 인생이 모임 여인 룯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시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워낙 신앙적인 배경이 없었던 터라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다녔는데 한 5번 정도는 교회를 옮긴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교회에서 교역자들의 권유로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15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연약함과 의지했던 남편의 죽음과 수많은 사건들이 겹치면서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더 깊어졌죠.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한 훈련과정을 통해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한국으로 들어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6개월 동안 함숙하는 훈련도 받았어요. 그때야 비로소 정말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 정말 실체가 되었어요. 그 후에는 그 단체의 미주지부와 동역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었어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오직 은혜의 복음 (4)

회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사울이 받은 무서운 저주는 '불경건'에서 비롯됐다. 그는 믿음의 모든 모양을 다 가지고 있었다. 베냐민 지파였으며,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위급할 때 법궤를 가져올 줄도 알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릴 줄도 알았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사울 그는 크리스천의 모든 문화와 자격을 다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 본 적이 없었다.

신학을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 경건하게 섬겨야 할 영원하신 살아계신 분이시다. 사실 사람이 불 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 보지 않을 그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 눈으로 보신다는 것이다.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는 하나님 앞에서의 '면전 의식'을 뜻한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일러스트= 임이량

사울의 관념 속 하나님 vs 다윗의 살아계시는 하나님

폐위된 왕 사울에게 하나님은 관념 속에 존재하는 분이셨다. 하지만 쫓겨 다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셨다. 다윗의 시편은 그가 겪은 고난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한순간도 살

아남을 수 없을 때, 보장된 내일이 없을 때 그의 주옥같은 시편들이 만들어졌다. 그에게 하나님은 피난처였으며, 산성이었으며, 구원의 뿔이였으며, 빛이었다.

비단 다윗뿐일까?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숨 쉬고, 침 삼키는 순간마다 우리에게겐 주님이 너무나 필요하다. 매일, 순간순간 다윗처럼 당신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말씀에 매달리고 있는가? 사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스스로' 왕 노릇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모든 순간에 왕 되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리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주 받은 옛 반역죄는 슬금슬금 기어 올라오기 시작한다.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한국교회는 신학 이론이나, 대단한 조직이나, 성직의 권위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설교강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기도하는 자리는 우리 영성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어선 안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가정

이 하나님 앞에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 앞에서 사는 경건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옛 추억 속에 살아계신 분, 이론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의 호흡보다 더욱 생생하게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라! 사울의 가장 큰 비극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 본 적 없었다는 것이다. 목사가, 장로가 불신자일 수 있다. 교리적으로는 유신론자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일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가장 두려운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 가는 것이다.(2016. 5 메시지 정리)<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LOG미션 대표)

2017 순회복음집회 오디오 CD 발매

창조주이자 만유의 대주재, 유일하신 하나님이 별레갈고 먼지같은 인생인 나를 아시고 부르셨다는 말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말이다.

당신, 부르심 받은 적 있는가?

죽음도 붙들지 못한 사람 예복은 그저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은 더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며,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었다.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부림절 사건 New 오디오 CD 발매

꼴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어정쩡하게 세상을 택한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자 세상에 폭 젖어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했다.

뒤쳐진 인생들,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없고 자책감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모르드개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넌 여전히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철저히 순종하자.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신다.

각 오디오CD(2장 한세트) 6000원(택배비 별도)
메시지가 CD 2장에 30분씩 4개의 트랙으로 편집,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입문의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boaz.co.kr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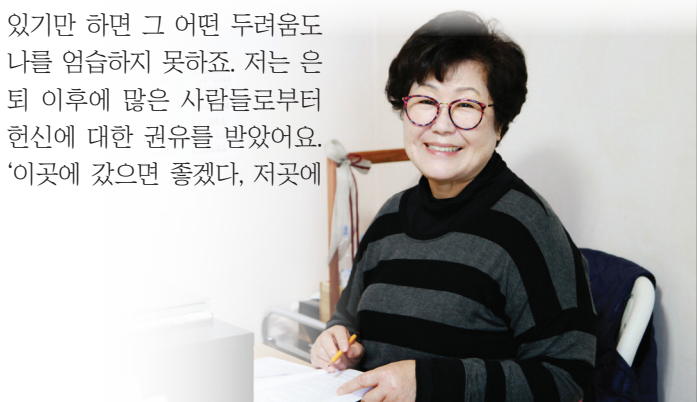
<5면에 이어>

“무슨 상황을 만나도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 그리고 헌신을 하셨군요.
“네. 그런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훈련들을 다 마친 뒤에도 주님께 제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니깐 여전히 공허했어요. 어느 날 아침 경치가 좋은 이층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살지?’ 당시 저는 여유롭고, 별걱정이 없고, 재정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는데요. 뭐가 할 것이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삶을 다 드린 지금 생각해보니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거죠. 이곳에서 제 삶을 드리기 위해서였던 거죠.”
- 지금도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그리고 헌신을 하셨군요.”
“네. 그런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훈련들을 다 마친 뒤에도 주님께 제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니깐 여전히 공허했어요. 어느 날 아침 경치가 좋은 이층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살지?’ 당시 저는 여유롭고, 별걱정이 없고, 재정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는데요. 뭐가 할 것이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삶을 다 드린 지금 생각해보니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거죠. 이곳에서 제 삶을 드리기 위해서였던 거죠.”
- 지금도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결국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그 어떤 두려움도 나를 엄습하지 못하죠. 저는 은퇴 이후에 많은 사람들로 부터 헌신에 대한 권유를 받았어요. ‘이곳에 갔으면 좋겠다, 저곳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을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서 들었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니깐 그런 사람의 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린 후에 한동안 몸이 꽤 아픈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주님께 ‘1년만 살려주세요. 다음세대를 섬기고 싶어요.’ 하는 기도가 간절히 나왔어요. 그 전에는 언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거의 다 경험해보니 지금은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간절해져요. 복음을 진작에 좀 만났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요. 복음을 살게 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GNPNEWS]

J.D.





부르심 앞에서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 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눅 12:35~36)

올해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전과 달리 말씀에 무게감이 느껴져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일하셨지만, 저를 향해 일을 시작하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선교대학 입학 설명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설명회를 들으며 이 자리는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자리라 여기고, 구경꾼의 마음으로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11시에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진 품꾼'과 같이 자비량 교육선교사를 모집하는 이 대학의 섬김이로 불러주셨습니다.

생각지 않은 부르심.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계획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매우 당황하고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가는 것이 맞을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나를 어쩌자고 주님은 부르셨을까? 주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나?' 끝없



일러스트= 박남희

는 의심과 불신이 저의 순종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갈등은 내가 원하는 때와 방법으로 부르심에 응답하고 준비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효녀라서가 아니라 연로하신 아버지를 홀로 두고 갑자기 떠나야 하는 무거운 상황,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욕을 먹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저와 주님과 긴 씨름 뒤에 결국 주님은 제 인생에 주인 된 '나'를 이겨주셨습니다. 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냐고 물을 때, '내가 가장 너를 잘 안다.' 고 말

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요한복음 20장 27~29절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편에서는 조금함 때문에 체한 것 같은 진통의 시간이었지만, 주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계획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단순히 이 결정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기차에 오르자마자 모든 부담감도, 가족들을 향한 어려

“
기차에 오르자마자
모든 부담감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

운 마음도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집중된 모든 것에서 주님께로 한 걸음 떼기가 이토록 힘든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다른 것 바라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가 자기가 넘어져도 받아줄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두 손을 벌리고 과감히 첫발을 떼는 것처럼 제게도 이러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이것이면 저 또한 충분했습니다!

언제 고민했나 싶을 정도로 이국

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부르신 학생들이나 섬김이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주님만 남는 자로 세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코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의 믿음을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만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고 홀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사라에게도 아들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당장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열방 가운데서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이루고 계심을 믿게 하십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 관심이 없었고, 선교의 '스'자도 알지 못했던 저를 이 세대를 섬기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깨어 등불을 들고 주인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충성된 하인처럼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하게 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마라나타!

[GNPNEWS]

정진이 선교사

부흥을 위하여

“기런데,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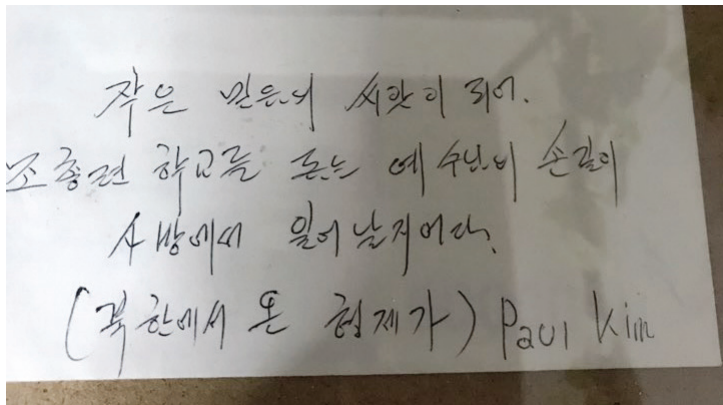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탈북

‘하늘에 신이 있으면 나 좀 돌봐주시라요!’

군대에서 제대한 후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이 외로이 혼자 살던 지명(가명)은 배고픔에 밤마다 녀두리하듯 신을 찾으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그때 문득 그의 머리를 스친 것은 중국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었다. 평소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이었지만 중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곧 달이 뜨지 않는 철쭉같이 캄캄한 밤에 강을 건넜다. 무사히 강을 건넌 지명은 무조건 불빛이 새어 나오는 집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다. 나무를 엮어 세운 담 너머로 집안을 살펴보니 모닥불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바람 따라 이리저리 너울대고 있었다. 밝은 전깃불 밑에 차려진 밥상을 마주하고 음식을 먹는 모습이 보였다. 지



▶ 한 탈북민이 최근 일본에 있는 조종권 산하의 조선학교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재일(在日) 선교사에게 보낸 현금봉투 사진(본지 기사와는 관련없음).

명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었다. 한참을 망설이며 서 있던 그는 배고픔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쓰러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저어...저...”, “아, 예. 들어오시라요. 지금 막 조선에서 넘어온 것 같은데.” 그는 마치 지명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맨발로 나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날래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집주인은 무더운 여름인데도 지명을 방으로 안내했다. 조금 후에 들어온 밥상에 지명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평생 그렇게 많이 담겨진 쌀밥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다. 주인은 허겁지겁 밥을 먹어

치우는 지명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북조선 상황이 많이 어렵지요.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밤은 편하게 쉬시라요.” 방문을 닫고 나가는 집주인의 웃음 띤 얼굴을 보며 배불리 먹고 난 지명은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나른해져 왔다.

처음 듣는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죄짐 말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훑아 떨어졌던 지명은 갑자기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마루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영문을 몰

라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집안 식구들이 둘러앉아 검은 책을 펼쳐놓고 주먹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노래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은 독생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지명은 ‘어케 사람으로 왔다가 우리 죄를 위해 죽을 수 있나?’라고 마음속으로 반문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고 말았다. 예배하던 식구들의 시선이 지명에게 집중되었다. “우리 예배 소리 때문에 깨셨나 봅니다.” “아, 아닙니다. 기런데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인의 말을 듣고 난 지명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왜 나에게 나쁜 사상을 주려고 하디...’ 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계속>

[GNPNEWS]

<출처: 붉은 예수쟁이(문광서원)>

나의 소망

내 설교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진 손양원 목사는 당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능력 있는 목사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손 목사는 신비주의적 색채가 섞인 기적이나 기복신앙을 극히 경계했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전하기를 힘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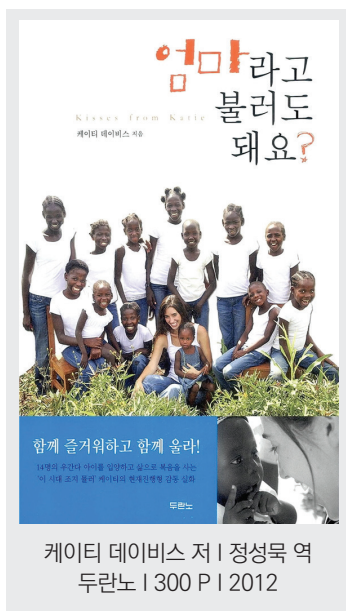
부산 초량교회에서 부흥집회를 하던 날, 뜨겁게 찬송을 부르는데 한 맹인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목사님. 내 눈이 보입니다! 내가 눈을 뗐어요!” 성도들이 웅성거렸고 설교가 중단된 채 감탄과 찬양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때 손 목사는 소란을 잠재우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 성도님들. 조용히 하십시오. 저 사람이 눈을 뜬 것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내 설교는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지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GNPNEWS]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케이티 데이비스의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를 찾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은 똬다”



이 책을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은 저자인 케이티 데이비스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 때문이었다. 그녀는 빛 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이 어두운 우간다 전체를 환히 밝힐 수 있다고 믿었다. 그분의 빛에 내 불길을 더하고 싶다는 믿음은 작은 순종을 낳았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가장 어둡고 소망 없는 땅에 맑게 드러내셨다.

케이티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자신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다고 고백한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서 방학을 이용해 부모님을 찾아 우간다의 고아원에서 3주간 봉사하게 된 것이 케이티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중상류층의 예쁘고 똑똑하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녀가 예수님을 향한 못 말릴 사랑으로 인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14명의 우간다 딸들을 얻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과 우간다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라고 일깨워주셨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명은 없다. 사랑은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는다. 아이들은 내가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나도 그 아이들의 사랑을 느꼈다.”

나는 다음세대를 섬기면서 아이들에게서 드러나는 죄 된 모습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낙심될 때가 많았다. 복음을 들어도 여전히 변

하지 않는 것 같은 아이들을 대할 때 케이티의 넘치는 사랑과 한없는 용납과 섬김은 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다. 14명의 아이 하나하나의 특성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였다. 그녀는 이 사랑에 대해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랑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고백한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이다. 난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이며 보이는 것으로 금세 실망하고 낙심하는 자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답이었다. 사랑은 더 큰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케이티의 집안에는 웃는 소리와 찬양과 즐거움이 충만하다. 그렇다고 그녀가 어렵거나 힘들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때론 수없이 부모님과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편하고 안락한 미국에서의 생활이 생각나 올기도 했다. 열악한 환경의 삶에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모

든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자신이 다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저 허락하신 단 한 생명을 사랑으로 섬겼다. 그것이면 충분함을 알게 되었다. 어렵고 불가능한 그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위로와 만족을 얻었다. 복음의 빛이 어둠을 뚫었다.

케이티의 삶에 감동을 받은 이유는 우간다의 수많은 아이들을 입양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스스로 용감하지도, 특별하지도 않다고 여기는 연약한 그녀가 수많은 갈등과 선택의 순간에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순종하는 믿음 때문이었다. 누구라도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케이티의 믿음은 인간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고 기꺼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지식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녀는 미국에서 대학교에 다니며 부모님과 약속을 지키려 했으나 결국 주님이 부르신 엄마의 자리를 택했다. 사랑하던 남자 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

아 힘들었으나, 결국 그녀는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선택했다. 우간다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온전히 그리스도의 품에 전부로 뛰어 들었다.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 한가운데 머물기 위해 그 무엇이든 버릴 수 있는 믿음, 언젠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을 생각하면 날마다 더 순종하고 싶어지는 믿음, 내 인생을 주님께 전부로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기꺼이 받고자 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그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아는 복을 누렸다. 할렐루야!

끝으로 케이티의 고백을 소개한다. “우리 딸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이 마구 똬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GNPNEWS]

우미영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이 개의 특성대로 달리게 해주고 싶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현장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지난 해 사역지를 지방으로 옮기게 됐다. 그곳에서 나는 그동안의 현장에서 뛰며 감당했던 사역보다는, 소소한 일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지내게 되었다. 7년차가 되었던 그때 마치 ‘안식’하는 시간이 주어진 것만 같았다. 주님 앞에 머무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시간이었다.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과 중 하나는, 팬더라는 이름의 개(犬) 한 마리를 돌보는 일이었다. 어릴 때 야 좋아했지만 어른이 되어서 동물들을 예뻐하거나 만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터였다. 생각지도 못한 직업이었지만 순종하며 이 일을 허락하신 주님을 알고 싶었다.

팬더에게 밥을 주고 주변을 정리하면서 어느새 ‘주인’의 마음이 일어났다. 돌보아주고 싶고, 살피게 되었다. 훈련을 잘 받은 팬더는 말을 잘 듣고, 나를 주인으로 알아보는 것 같았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러한 동안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소유된 나와 관계가

그냥 목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명 ‘양치기 개’로 알려진 보더콜리 종인 팬더는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루는 팬더에게 밥을 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내 안에 한 생각이 스쳤다. ‘달리게 해주고 싶다.’ 순간 다시 질문이 되었다. ‘어? 달리게 해주고 싶다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팬더의 특성을 특성대로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비록 미물이지만 달릴 때 제일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 것 같았다. 그 생명이 생명의 특성대로 마음껏 드러나게 해주고 싶었다. 팬더를 좋아하게 되자 그렇게 해주고 싶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섭리를 묵상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며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죄로 그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그런 내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원래의 형상을 되찾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생명이 생명대로 마음껏 꽃피우게 하고 싶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

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원형(原形)의 생명이 생명답게 드러나는 것은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사랑하면 얼마나 자발적이고 창의적이고, 무궁무진하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나를 드리게 되는지! 개 한 마리를 보면서 들었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생명이 생명답게 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살기 원했지만, 원리와 원칙으로 해보려고 했던 지난 시간들. 그러나 복음의 삶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으로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명의 반응이었다. 자유가 임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이 내가 살아 내야 할 법이 아니라 살게 되는 생명의



일러스트=이수진

로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이 되었다.

그 이후 나는 다른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고, 새로운 영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무슨 일을 하게 되고 누구를 만나든, 그때 알려주셨던 복음의 진리가 더욱 깊어지고 누리

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 ‘사랑하는 삶’이다. 오늘도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도록 나를 드리다. [GNPNEWS]

박남희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 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7. 5. 11 ~ 5. 25 (가나다 순)

개인

강은진 강종재 권혜령 김사회 김선희 김성훈 김영세 김영수 김혜신 박숙자 안병윤 유자인 윤경석 이경희 이복길 이영심 이현희 임인자 임종태 장근혜 장미자 장영선 조경미 조명숙 지석범 차인순 최정숙 하은숙 허금희 무명

교회 및 단체

김화제일교회 시은좌교회 시흥지체교회 열매교회 열방그루터기교회 익산사랑교회 전주은누리교회 주만교회 천보산민족기도원 하원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채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